



[녹]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2024년 10월 20일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  
**성 이윤일 요한 한인천주교회**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홈페이지 [www.charlottekoreancatholic.org](http://www.charlottekoreancatholic.org)

#### ◆ 미사 시간

- 주일미사: 오전 10시 30분
- 평일미사: 수, 금 오후 8시

#### ◆ 공소 미사

- 콜럼비아: 100 Polo Rd  
Columbia SC 29223  
매월 2,3째 토(오후 7시)
- 그린빌: 1215 SC-14  
Greer, SC 29650  
매월 1,3째 일(오후 5시)

#### ◆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성시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30분

#### ◆ 봉성체

매월 둘째 금요일 오전 11시

#### ◆ 유아세례/병자성사

사무실로 연락  
704.531.8417

#### ◆ 사목회의

매월 2째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 ◆ 본당신부

이진희 사도요한  
Rev. Jinhee Lee  
1227jeanlee@gmail.com

#### ◆ 사목회장

박정례 에스더  
estherjeongpark@gmail.com  
704.208.9006

#### ◆ 사무실

stjohnleecharlotte@gmail.com  
704.531.8417

#### ◆ 주소

7109 Robinson Church Rd.  
Charlotte, NC 28215

#### ◆ 미사 전례

##### • 성가

입당 39 봉헌 220 성체 496,502 파견 63

##### • 제 1독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2,1-5

##### • 화답송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 제 2독서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10,9-18

#####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 • 복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28,16-20



Nicolas Poussin: Seven sacraments: ordination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황은모(요한) 신부**

## 말씀 KEY WORD

### 제자 만들기

(마테테우오 μαθητεύω)

마태오 복음의 '제자'는 전통적인 제자, 그러니까 12제자를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복음 마지막에 전통적인 제자는 모든 민족을 향한 개방과 초월의 상징체로 다시 해석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 열심이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는 특별히 뽑힌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친교의 자리입니다.

## 복음화

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전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이에 걸맞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오늘날 사람들의 종교관은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의 종교에 소속되어 그 종교에서 제시하는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종교의 믿음과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만의 고유한 종교심, 혹은 영성을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교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저 역시 신자가 아닌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만나 대화하다 보면 이러한 모습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나 영성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로 신적인, 혹은 초월적인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인간이 믿고 따라야 할 진리와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안에서는 “복음화”된 모습이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들에게 성당에 다녀보라고 권유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저 웃거나, 혹은 좀 더 시간을 달라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실 섭리의 방향과 그 순간을 좀 더 기다려 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복음화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신념과 믿음을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신념이 하느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느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때와 방식 역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알고 만나고 체험한 하느님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더 집중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신념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혹은 그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가는 데에 아주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4년 본당 사목표어  
"친교는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1. 미사 및 성시간에 적극 참여
2. 본당 행사와 구역 모임에 적극 참여
3. 제단체 활성화

# 친교는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1. 우리 모두 함께 해요

- 주일미사 후 삼종기도 바치기
- 입당성가 2절까지 부르기
- 성당 안에 들어오시면 침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주기도 성월

-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미사 전에 목주 기도 와 목주기도 성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 시간 : 오전 10시

3.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안내

- 10월 20일(일)은 전교주일로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합니다.

4. 성지 순례 안내

- 장소 :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성모님 발현지
- 일정 : 10월21일(월) ~ 10월 31일(목)

5. 손님 신부님 미사 집전 안내

- Rev. Innocent C. Amasiorah
- 일시 : 10월 27일(일)

6. 평일 미사 취소 안내

- 일시 : 10월 23일(수), 10월 25일(금), 10월 30일(수)

7. 2차 헌금 안내 : 세계 선교를 위한 2차헌금

- World Mission Sunday
- 일시 : 10월 20일(일)

8. 재무위원회 협조 안내

- 교무금을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은 다음주 주보 교무금 납부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25년 주소록 제작 협조 안내

- 사목평의회 위원장 : 위원회별 사목계획서와 행사계획표
- 구역 위원장 : 새로 오신분, 주소록에 없는 분들 명단 및 사진
- 평신도 단체장 : 행사계획표
- 상임위원회: 사목계획서, 행사계획서, 광고신청 접수

10. 꾸리아 모임안내

- 10월 20일(일) 미사후

11. 전체 친교안내

- 일시 : 10월 20일(일) • 주관 : 사목위원회

12. Trunk or Treat

- 일시 : 10월 27일 미사후
- 대상 : 모든 어린이들
- 친교실 바로 앞 주차 공간은 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3. 줌으로 하는 연중 신앙 특강

- 주제 : 행복을 선물하는 윤리
- 일시 : 2024년 10월 20일 (일) 오후 8시
- 강사 :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  
부산교구 교리 신학원장, 로마 윤리 신학박사
- Meeting ID : 813 360 8420
- Password : 12345

14. Daylight Saving

- 일시 : 11월 3일  
일요일 오전 2시



미사 참례자 수: 10 월 13 일 (132명)

우리들의 정성

주일 헌금	\$ 1,180.00	DSA	\$ 0.00
교무금	\$ 1,792.00	2차 헌금	\$ 0.00
건축 헌금	\$ 448.00	감사헌금	\$ 1,500.00
매일 미사	\$ 28.00	<b>총액</b>	<b>\$ 4,948.00</b>

- 교무금 : 신부님, 송영은, 김순여, 김진호, 최순길, 우귀숙, 정규승, 한철교, 황도린, 최재진, 박윤경, 장경선, 구경태, 박은수
- 감사헌금 : 김진호, 장영기, 장순선

생 미사	황보나 보나, 장상원 미카엘, 김명숙가정
------	------------------------

연 미사	지복순 데레사, 신종석 요안,
------	------------------

병중에게신분	박은수 라우렌시오, 신완식 안드레아, 장상원 미카엘
--------	------------------------------

전례	구역/일시	전례담당
연중 제 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 를 위한 미사	4구역 10 월 20 일(일) 10:30am	• 해 설: 박상민 • 독 서: 안정진, 안희숙 • 봉 헌: 박익삼, 박숙자
연중 제 30주일	5구역 10 월 27 일(일) 10:30am	• 해 설: 박은표 • 독 서: 정규승, 정재환 • 기도: 김정숙, 한미나 • 봉 헌: 모정순, 김순녀



# “가서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여라” (마태 22,9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올해 전교 주일을 위하여 선택한 주제는 혼인 잔치의 비유(마태 22,1-14 참조)에 관한 복음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인 임금은 자신의 초대를 손님들이 거절하자 종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마태 22,9). 우리는 이 핵심 구절을 성찰하면서 복음화의 여러 중요한 측면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1. ‘가서 초대하여라!’ 주님의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려 끈기 있게 나아가는 선교 사명

임금이 종들에게 내린 명령에서, 우리는 선교 사명의 핵심을 표현하는 두 단어를 발견합니다. 바로, ‘가다’ 그리고 ‘초대하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선교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과 친교를 시작할 수 있게 초대하려고 그들에게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상황에서 복음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 이러한 보편적 선교 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하여 온 교회가 교회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분과 함께 오늘날 이 세상의 ‘교차로’로 계속해서 떠날 수 있도록 합시다.

## 2. ‘혼인 잔치에’ -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명이 지니는 종말론적 차원과 성찬의 차원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한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종들에게 일렀습니다. 이 잔치는 종말론적 잔치를 반영합니다. 종말론적 잔치로의 초대는, 주님께서 당신 말씀과 성체 성혈을 양식으로 주시어 우리를 살찌우시는 성찬 식탁으로의 초대와 본질적으로 연결됩니다.

## 3. ‘모든 사람’ - 시노드 정신을 온전히 살아가며 선교하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닌 보편 사명

세 번째 성찰은 임금의 초대를 받는 이들, 곧 ‘모든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이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선교 사명은 모든 이를 당신께 이끄시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교황청 전교기구 총회에서 한 연설, 2023.6.3.).

모든 이를 위한 선교 사명은 모든 이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봉사하는 가운데 시노드 정신을 온전히 살아가며 선교하는 교회를 향한 여정을 계속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보편 교회에도 개별 교회에도 모두 긴밀한 선교 협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끝으로, 눈을 들어 성모 마리아를 바라봅시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 제자들의 복음화 사명을 위하여 성모 마리아께 어머니의 전구를 청합시다. 그리고 가서 전합시다. 우리 어머니의 기쁨과 애정 어린 염려로 그리고 온유와 사랑에서 비롯된 힘으로(「복음의 기쁨, 288항 참조) 모든 이에게 가서 우리 구세주 임금님의 초대를 전합시다. 복음화의 별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